

이표부착 사업 이대로는 안 된다!

한국양록협회

본회는 지난 몇 년 동안 국내에 사육 중인 사슴이 질병발생 시 신속한 이동경로 추적을 통한 질병관리와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슴이표부착 및 데이터베이스화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지난 2005년 11월 농림부의 「사슴이표부착 및 전산관리사업 실시요령」에 의거 올해부터 우선 엘크사슴부터 이표부착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이표53,000조 및 이표장착기 480개 제조를 위한 110백만 원의 예산을 각 도 축정과로 배정되어 현재 이표 및 장착기의 제조가 완료된 상태이다.

그러나 본회는 이표와 이표장착기 만으로 본사업의 추진이 불가하여 인건비 등 추진성 예산을 지원하여 줄 것을 정부에 누차에 걸쳐 건의 요청하였으나, 정부는 책정 예산이 없어 지원이 불가능하니 협회에서 알아서 추진하라는 의견으로 현재 이표부착사업이 난관에 봉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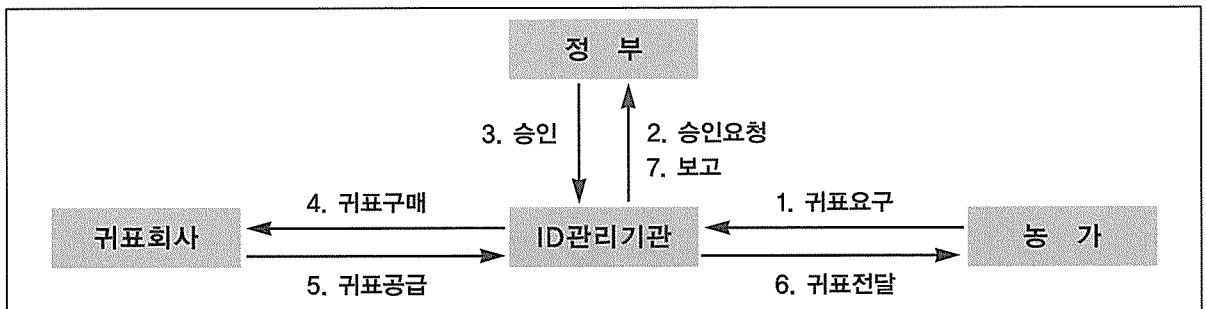
하지만 협회는 2백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가면 서도 실패한 소의 이표사업을 누구나 알고 있는 사

실을 미루어 볼 때, 현재 사슴이표사업이 많은 문제점 있고 계획없이 이대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즉 소보다도 더 어려운 사슴이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사항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첫째, 이표부착을 위한 추진성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사슴이표장착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지원된 예산은 '05. 11월 시·도 축정과에 이표 및 이표장착기 제조를 위한 110백만원일 뿐, 본회가 이표장착을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 교육비, 전산관리비 등의 추진성 예산은 누차에 걸쳐 지원요청을 하였으나 전혀 지원되지 않은 상태로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본회는 매년 사슴사육 농가 및 사슴두수 감소로 회원의 감소와 그에 따라 회비 등의 수입이 감소하여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워 협회운영에 많



〈가축개체 식별 시스템 체계도〉

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협회에서 수억 원 이상의 많은 이표관련 추진성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사업은 정부의 지원이 없이 우리 협회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없다고 생각된다.

둘째, 성공적인 사슴이표부착을 위해선 수의사 등 전문가의 인력이 요구된다.

사슴의 이표부착은 일반 축종과 달리 마취 및 회복의 특수한 행위가 요구되고 잘 못 마취 시 사슴이 사망(사망 시 책임소재 문제 발생)하는 등의 불상사가 발생하므로 수의사 등 전문가를 통한 도움이 필요하다. 또한 사슴의 나이나 순종등록 그리고 이표의 정확한 부착 등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감식이나 인력지원이 요구되며, 무엇보다도 농가 홍보 등 충분한 사전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셋째, 협회회원을 통한 이표부착은 한계가 있다.

사슴농가는 일반 축종과는 달리 산골 등에 수십 킬로그램씩 드물게 산재되어 있어 본회 회원농가의 이표부착 협조가 사실상 지난하며 짧은 절각시기에 일괄 적으로 동시에 이표를 장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엘크 숫 사슴의 절각 시기는 약 2개월이지만 농가에서 집중 절각하는 일수는 토요일과 일요일(특히 성록의 경우 일주일 사이에 집중 절각) 약 2주일 정도뿐이며, 이 시기는 녹용을 절각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녹용 등을 집중 판매하는 바쁜 시기

로 다른 농가에 대한 이표부착 협조나 정부에서 지원된 22개 농가당 1개의 장착기로 농가가 돌러가며 이표를 부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현실로 새로운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사슴의 이표장착을 위해선 소, 돼지와는 달리 사슴에게 마취나 보정틀을 요하고 마취 시 사슴의 사망 등 사고가 발생하여 책임소재 및 사고 시 보상 문제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뿐 만 아니라 폐사 시 보상 문제 등 이와 관련한 적정 기준안 등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넷째, 사슴의 이표사항 등록을 위한 충분한 전산개발 기간이나 비용이 요구된다.

이표를 부착한 사슴을 효율적으로 등록 관리하기 위해선 전산데이터 구축을 위한 충분한 전산개발 기간이나 억대의 비용이 요구된다.

다섯째, 소이표사업의 실패 경험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소이표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면, 우선 이표 탈락률이 높아 개체관리에 어려움이 많았고, 이표 재활용에 문제가 있었으며, 또한 국제표준화에 적합한 신규식별코드 개발 및 적용 필요성 등이 제기 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표를 첫째, 국제표준화 및 장래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식별코드를 현행 9자리에서 12자리(국가코드 포함 시 15자리, ※ 현재 제조된 사슴이표는 9자리로 국제표준화와 맞지 않음)로 늘리고, 둘째, 이표의 전면 개편과 탈락에 대비하여 양쪽에 부착하는 것 등을 검토 추진하

고 있다. 한편, 소의 가축개체 식별 시스템의 체계도는 아래와 같다.

여섯째, 사슴의 자가 도축 금지사항은 철폐되어야 한다.

농림부에서 시달된 사슴이표부착사업의 실시요령에 의하면, 사슴이표장착 이후인 “06. 7월 이후부터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사슴육·중탕 등의 용도로 사슴을 도축하고자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도축장에서 도축하여야 하고, 위반 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현재 사슴품목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도축장 허가가 난 곳은 극히 일부분으로, 전국적으로 사슴도축장이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가 도축을 금지할 경우, 양록 산업은 존폐의 위기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협회에서는 시행을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사슴 도축장이 마련된 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결론적으로, 소의 이표사업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공을 거두지 못한 사례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현재 소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슴이표부착 사업은 누가 보아도 성공하기가 어렵고 예산 및 인력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실패가 보이는 사슴이표부착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관계기관이나 각계 전문가 및 농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추진시 문제점과 대책 등을 논의 재검토하여 세부추진 계획안을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시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슴 이(耳)표부착 및 전산관리 사업실시요령 (농림부)

2006년도 시범사업 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배경 : 사슴 만성소모성질병(CWD)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이동경로 추적으로 가축질병의 조기근절 유도

○ 사업기간 : 2년

○ 이표장착 대상 : 전국의 사육중인 사슴
(엘크 우선 실시)

○ 지원조건 : 연도별 차등지원

- 1차년도('06) : 보조 100%

※ '05년 농특회계(가축방역사업) 예산 한도 범위내에서 지원

- 2차년도('07) : 보조 70% 협회 및 농가부담 30%

- 3차년도('08)부터 : 협회 및 농가 부담 상향조정

나. 2006년 사업비(예산) 내용 : 110,300천원

○ 이표제작(53,000조) : 100,700천원

○ 이표장차기(480개) : 9,600천원

※ '07년도에 엘크 암사슴 및 엘크 이외의 사슴으로 확대 적용을 위한 보정률 지원 등을 검토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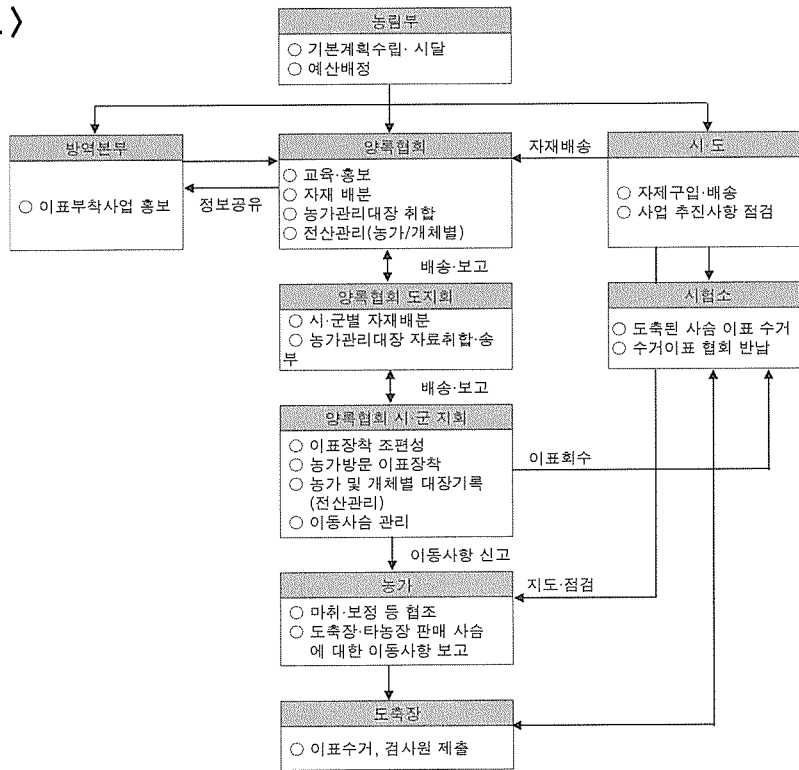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가축방역과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점검

- 예산확보 및 집행 상황 감독, 관련법령 제정 등

나. 사업 시행 기관

<추진체계도>



-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도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한국양육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업무를 분담

- 시·도 : 예산편성·집행, 자재구입, 사업 점검 등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사슴 이표 부착 사업 홍보
- 한국양육협회 : 사슴에 이표장착, 농가 및 개체별 대장기록, 이동사슴 관리, 교육·홍보, 전산 관리 등

다. 사업지도·점검기관 : 시·도, 시·군

- 관내 사슴사육 농가에 대하여 사슴 이표부착 및 등록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점검

-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군 및 비협조 농가에 대하여는 사업독려 실시

라. 사업시행

1. 사업설명회 실시

○ 사슴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위하여 이표 부착 및 등록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시행방법 등을 설명 (한국양육협회 주관)

- 전국 사슴농가를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 및 홍보자료 배포

○ 각 시·도에서는 교육대상자 소집 및 교육장소 등 협조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축산연구소에서는 강사 지원 등 협조

※ 특히 사업실시 년도부터는 사슴육 중탕 등의 용

도로 사슴을 도축코자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도축장에 도축, 위반 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행정 처분 실시

2. 개체별 이표부착

○ 시도(시·군)는 사슴 이표부착에 필요한 이표, 이표장착기 등 자재를 구입하여 양록협회에 배분
- 양록협회는 해당 시·군에 필요한 자재를 시·군지회에 배분

※ 이표제작 시 개체별 고유번호 및 사양서 참조

○ 양록협회 시·군 지회는 사슴 이표부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 임직원이 주축이 되어 이표 부착반(2~3개반)을 편성

○ 이표부착반은 배분된 자재로 관내 사슴농가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체별 이표를 부착
- 사슴의 특성상 이표부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숫사슴의 경우는 매년 절각(5~8월) 시기 및 암사슴은 분만 후 포유말기(8~9월)에 이표 부착 실시

※ 농장 여건상 이표부착에 가장 효과적인 시기·방법 등을 감안하여 이표 부착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 이표부착이 완료된 농가에 대하여는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도지회를 경유하여 양록협회에 송부

○ 사슴농가는 이표부착반이 이표부착을 위하여 농장방문 시 사슴보정 등 적극 협조

3. 등록사슴 관리

○ 사슴농가에서는 등록사슴을 타 농장으로 판매 및 도축장으로 출하할 경우 해당 양록협회 시·군지회에 통보

○ 양록협회에서는 이표부착을 완료한 농가의 등록 관리대장을 취합하여 전산입력 후 데이터 관리

○ 사슴의 농장 간 이동 및 도축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데이터 수정 등 지속적인 전산관리

○ 시·도(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도축된 사슴의 이표를 수거하여 관내 양록협회에 반납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이표부착반 운영실태 및 사슴농가에 대한 이표부착 추진사항 등을 지도·점검

※ '06. 7월이후로부터는 도축장 이외 장소에서 불법 도축하는 농가에 대한 특별 단속 실시

○ 양록협회는 시·도(시·군)에서 이표부착 추진사항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등록자료 현황을 수시로 시·도에 통보

나. 사업 추진사항 보고

○ 사슴농가는 등록사슴 변동사항에 대하여 시·군지회에 신고 : 7일 이내

○ 시·군지회는 사슴등록 관리대장을 도지회를 경유하여 양록협회(본부)에 제출 : 10일 이내

○ 양록협회는 시·군별 사슴등록관리대장을 전산입력 실시 : 즉시

○ 양록협회는 사슴이표부착 및 등록사업 추진사항을 농림부에 보고 : 매월 10일까지

○ 완료보고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 시·도는 이표제작 및 장착기 구입하고 양록협회에 인계후 사업완료 보고서 및 정산결과서를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